



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한총리, 잼버리 논란에 “원인규명, 대회 잘 끝내고 하는게 옳아”

출입기자단 간담회…“잼버리 여파, 11월 2030년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 큰 영향 안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태풍 6호 카누 대비와 세계 잼버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폭염 대응 미비와 운영 미숙으로 비판받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 “원인 여하를 밝히고 하는 문제는 잼버리가 잘 끝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 차원 조사나 감찰 가능성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금으로서는 잼버리를 잘 마치는 것이 최우선 순위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총리는 이번 잼버리대회 여파가 오는 11월에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해 본 몇 주한 대사들은 본인들은 충분히 만족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분이 많다”고 전했다.

“대회를 12일까지 하게 돼 있고, 그 후에도 며칠을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국 문화를 더 접하고 싶다는 국가와 대원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수습 총괄 조직은 대회 조직 위원회라면서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중앙정부의 노력 없이는 대원 분산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6호 태풍 카누를 언급,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 직속 기구 신설도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행안부가 재난관리본부의 차관급을 따로 가진 총괄부서로서 그 조직이 원활히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행안부의 600명 가까운 인력이 차관 지위로 맡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결과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임을 건의했지만 일주일 넘게 조치가 없는 데 대해 “요청드렸으니, 대통령께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잼버리대회 기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던 안제이 두다 플란드 대통령의 방한이 취소된 데 대해선 “한국에 폭풍우 같은 것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방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으로 들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본격 시행이 임박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과학적인 기준에 맹개 처리를 거쳐 방류한다면 반대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새 정부도 똑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일본 측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 표명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그런 논의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그런 것의 양해를 구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선 “내년 성장을 전망치가 2.4% 정도 되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 정도를 빼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물가상승률도 최근 2.3% 까지 하락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 송진영 기자

태풍 카누, 모레 오전부터 글피 새벽까지 국내 통과 전망



태풍 카누 북상에 부산항으로 대피한 선박

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인다. 카누 예상 경로가 더 서쪽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카누 경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카누의 세력,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세, 우리나라 북쪽에서 대기 상층으로 유입되는 기압골 등이 꼽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일본 도쿄 남동쪽 해상에서 제7호 태풍 라이언이 발달했는데 라이언 카누과 직접 상호작용은 없겠지만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세에 영향을 주면서 카누의 경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각국 수치예보모델 전망치도 카누가 일본 가고시마를 지난 이후 시점에 대해서는 편차가 큰 상황이다.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은 카누의 세력은 현재와 비슷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세는 약하고 카누와 북쪽 기압골 간 상호작용은 강하게 일어나 카누가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하는 것을 유력하게 본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모델(ECMWF)은 카누의 세력은 KIM처럼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보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세는 강하고 북쪽 기압골과 상호작용은 약하리라 보면서 한반도 중심을 관통하는 것을 유력한 경로로 제시했다.

영국 기상청 통합모델(UM)은 카누의 세력과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세가 모두 강하고 북쪽 기압골과 상호작용은 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카누가 전남을 스쳐 서해로 진출해 중국 산동반도를 향해 나아가는 경로를 유력시하고 있다.

각국 기상당국 카누 예상 경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쪽

/ 김강우 기자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이화영 재판 계속 파행…변호인 '덕수' 사임계 내고 중도 퇴정

李 동의 없는 증거의견서·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했으나 바로 철회돼

8일 쌍방을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의 중도 퇴정으로 1시간 만에 또 파행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 측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 42차 공판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와 검찰의 날 선 공방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전담한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가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 변호인을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덕수를 유령 취급하는 것 이나”고 검찰에 언성을 높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남편의 검찰 조사 태도가 최근 일부 바꿔자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를 제출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이날까지 부인과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자 해광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과 덕수 측의 대립은 변호인이 최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격화됐다.

검찰은 지난 달 중순에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한 기준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조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취지

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해광 측(증거에 대한) 내용 부인하겠다고 해서 증거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입장인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가 “당신이 변호사입니다?”라고 소리쳤고, 검찰은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게 맞나”며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재판 절차 진행 논의를 위해 공판은 10분간 휴장됐다.

김 변호사는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무관한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 재판장 기피신청서 및 변호인 사임서를 차례로 제출했다.

그는 검찰이 “(덕수 측이) 진술 조서를 오로지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재판장님, 미션을 얘기하는데 놔두시는 거냐. 퇴정하겠다”며 10여분 만에 퇴정했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

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증거의견서와 기피신청서를 처음 들었고 읽어보지 못했다.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밝히면서, 증거의견서는 반려되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철회됐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예고한 대로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측 증인신문(재주신문)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대리할 변호사가 공판 도중 사임하면서 재판은 또 파행됐다.

지난 달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에 따라 같은 달 25일 41차 공판이 공전한 데 이어, 이날 공판도 진척 없이 끝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한 달가량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매주 화요일로 기일이 잡혀있는데, 일주일 뒤인 15일은 공휴일(광복절)이라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이 될 수밖에 없다.

/ 송우영 기자



민주노총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하라”

민주노총은 서울시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비는 삶을 지탱하고 노동과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필수비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은 수도권 노동자와 시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전국적인 교통요금 인상의 출발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안 그대로 괴팍한 삶을 더욱 확대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 요금을 시장 논리가 아닌 공공성을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 권정석 기자

“대중교통은 노동자와 시민의 발이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더 활성화하고 발전 시켜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라면 값 인하를 강요하던 정부가 보란 듯 버스·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행태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오는 12일부터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 7일부터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여 만이다.

/ 권정석 기자

손주 보는 조부모도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4촌이내 친인척·도우미 도움받는 가정에 월 30만원…“양육공백 실질지원”

서울시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도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

기관으로는 맘시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당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

봄에 대해 지급된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하면 된다.

신청은 9월1일 문을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 이윤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시는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위해 별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대전역 살인예고’ 20대에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적용

대전경찰청은 유튜브 댓글 창에 ‘살인 예고’ 글을 남긴 혐의(협박)로 체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1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죽을게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전역 주변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추적 수사를 통해 A씨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7일 오전 11시 55분께 서울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등

을 통해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 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처벌뿐 아니라 순회 배상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 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양준성 기자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할 때입니다

BUY KOREA BUY BOND

대한민국 국공채, 국내 우량채권을
KB증권에서 투자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3595호(2022년 10월 28일~2023년 10월 27일) *투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기준 변동률, 원금 변동률,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부도·파산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0,- 순으로 구분됩니다.

‘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골조공사 불법 재하도급 의혹

서울국토관리청, 경찰 수사 의뢰…하도급업체 “일용직 고용”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하도급 건설업체가 골조 공사를 무등록 시공팀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부경찰서는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 건설업체 A사와 4개 시공팀을 수사하고 있다.

A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의 골조 공사를 시공사인 GS건설로부터 도급받아 4개 무등록 시공팀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타설과 해체 정리 등 골조 공사를 12개 시공팀이 분야별로 나눠 맡았으나 이 가운데 4개 팀은 10~30명씩 인 팀원들의 일당을 모두 팀장이 받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팀장이 팀원들의 일당을 한꺼번에 받은 시공팀은 사실상 재하도급 업체로 봄

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에 등록된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또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A사 현장소장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골조 공사 시공팀과 재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을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모집해 일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4개 시공팀의 팀장들도 경찰 조사에서 현장소장과 비슷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시공팀장이 하도급 업체와 일용직 계약을 맺

고 팀원들의 일당을 모두 수령하는 관행이 불법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는 한편 해당 시공팀을 무등록 건설업체로 볼 수 있는지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자 중 일부를 조사했다”며 “불법 재하도급과 무등록 업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은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정부가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5개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서 일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 김관우 기자

고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3천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

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44)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을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박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다른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 송원기 기자



영장심사 받으러 가는 박차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우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

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 시설 사진 】



해맑음센터가 이전하는 충북 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 건물 입구

‘학폭피해지원’ 해맑음센터, 충북 영동으로 이전…9월 운영 재개

죽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시·도 교육청 협조를 받아 후보지를 총 6곳으로 확대했고, 해맑음센터와

논의한 끝에 학생 수련 활동 공간·교직원 휴양시설로 사용되던 영동휴양소를 임시 장소로 확정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날 영동휴양소 사용 허가를 해맑음센터에 통보하는 한편 교육활동, 업무 등을 위한 공간 배치와 시설 보완 등이 이달 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맑음센터 정원이 30명인데, 영동휴양소 안에서 (정원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피해 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충북교육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 장순호 기자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심사 출석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구속 심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하며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영장심사 받으러 가는 박차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우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

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거북선 최초 출전한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로 기념한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과 거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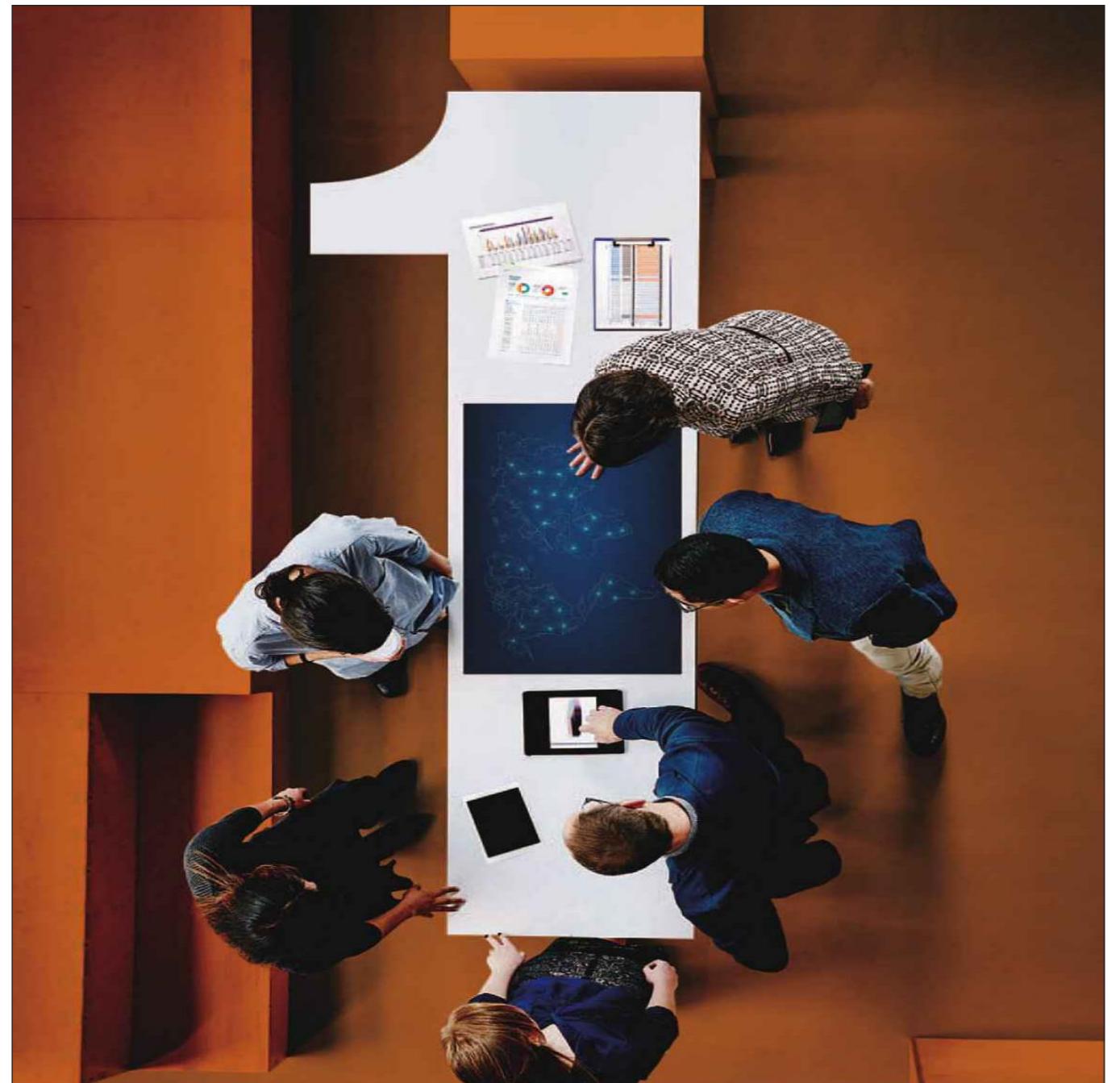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한국 방위산업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방위산업공제조합 기업 대상이 방위산업과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 구소 등 연구기관으로도 확대된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기업에 보증·공제 제공을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된 제도다. 업체뿐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곽준영 기자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월리금 보정 및 비보장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법상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법상 예금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합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연 0.18%, 3억 이상: 연 0.15% (장기계약 할인 및 디렉트계약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자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세요” 행안부, 9~11일 홍보행사 마련

정부가 도입 1주년을 맞이한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행사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를 9~11일 김포공항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김포공항을 방문하는 국민은 1층 발급 부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내선 비행기 수속 시 신원 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9일에는 개그맨 김준호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

동에서 사용을 시연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이다.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며,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공공기관, 은행, 공항 국내선,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렌터카 업체, 통신사, 선거 등 실물 신분증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상 은행(1금융권), 신한·국민

등 카드사, 신한·키움 등 증권사, 정부24 등에서도 통용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등을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문서로 규정되어 위변조하거나 행

사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은행(1금융권), 민간 SNS, 흠택스와 같은 정부 서비스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부 외 입법부, 사법부 등 청사에서 도 모바일 신분증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주점, 편의점, 렌터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송현수 기자

여야, 이동관 청문회 일정 '16일 VS 21일' 줄다리기

與 “법정 기한 지켜야”…野 “검증 위한 준비시간 필요”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오는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을 협의 중이지만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방통위 운영을 위해 조속히 다음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6~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를 23일 전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오는 16일 안에 청문회

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청문회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23일 다른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 혼자 남는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인 체제로는 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반면 민주당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1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자녀 학폭’의혹과 언론 탄압 의혹 등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회에서 실시 기한인 15일을 넘겨 청문회를 마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합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휴가철이고 수해 복구 등으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준비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며 “오늘 (여당과) 협의해 결론을 내보겠다”고 밝혔다.

/ 한호성 기자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테스크포스(TF)’가 8일 오전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관련 보강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與, 철근누락 아파트 현장 점검 “이번 기회에 카르텔 타파”

국민의힘은 8일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향후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오전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양주 회천 A15 블록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철골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정재 TF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하·서범수·홍석준 의원 등 TF 위원들이 자리했고, LH 측에서는 이현준 사장 등이 동행했다.

TF는 LH 측으로부터 지하 주차장 무량

판 구조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 주차장을 찾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장은 “건설업계에 설계, 시공, 감리 등 시스템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며 “이 사태는 어느 한 편이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산업 시스템 붕괴가 가져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TF 위원들은 오는 12일 예정된 입주에 정자 설명회와 관련해 “(입주자·예정자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신뢰를 줘야만 (공사가) 의미가 있다”며 철근 보강을 마치고 미관 공사 전 상황을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균열해야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오창민 기자

“이체한도 30만원? 규제 과도”

규제심판부 “국민불편 완화하라”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 때 서류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일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 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포통장 균절 방침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하라”고 했다.

은행권은 지난 2016년부터 대포통장 개설을 막고자 새 은행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받게 했다. 법인에는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이 요구됐고 개인에게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받았다. 이 같은 서류를 내지 못하면 일일 금융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현

금자동입출금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됐다.

이때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신규창업자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낮은 거래 한도의 통장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일 거래한도 30만~100만원은 해외 사례보다도 엄격하고 일반 소득 수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규제심판회의는 지적했다.

/ 곽훈정 기자

울산 진보당 “내년 총선 후보 북구 윤종오·남구을 조남애 출마”

진보당 울산시당은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후보로 울산 북구 지역에는 윤종오 전 국회의원, 울산 남구을 지역에는 조남애 전 남구의원이 각각 단독 출마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한섭 울산시당위원장과 두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교체로 국민 직접 정치시대를 열겠다”며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진보당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2년 차에 대한민국은 민생재난, 외교재난, 안전재난 등 재난 공화국이 되었다”면서 “총체적 재난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현 정권을 심판하고 정치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은 재난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민주



진보당 울산시당, 내년 총선 후보 출마 선언

당의 ‘기득권 카르텔’에 국민은 치를 뗄고 있고 윤 정권의 폭주에 끌려다니며 어떤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은 무능한 양당 정치를 넘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망하고 있다”며 “진보당

은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 파탄에 맞서는 국민의 정권 심판 에너지를 모아, 22대 총선에서 진보와 대한민국 정치교체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8~22일 모바일 투표를 거쳐 이들 두 후보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 노승우 기자

한화시스템, 함정 통합기관제어체계 국산화 기술 첫 확보



한화시스템 연구원이 함정 통합기관제어체계(ECS)의 추진계통 제어 및 감시 운용자화면을 점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함정 통합기관제어체계(ECS) 국산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ECS는 함정의 추진·전력·보조기기·손상계통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용·감시·제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운용과

전투 성능을 높이는 핵심 장비다.

현재까지 우리 해군 함정에 탑재된 ECS는 함형별로 다른 해외 제품이 탑재돼 성능 개량 등에 한계가 있었다.

한화시스템은 모든 수상함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ECS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함정 탑재 적합성을 검증했다. 이번에 완성한 개발 장비는 우리 해군이 국산 ECS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호 한화시스템 부사장은 “향후 신조 함정 ECS 국산화는 물론 해외 장비를 탑재한 기존 운용 함정의 ECS까지 국산화할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성준 기자

시대를 앞서 가는 시선

앞만 바라보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큰 그림을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한화생명의 시선은
모든 방향으로 향합니다

한화생명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서 무죄

검찰은 징역 1년6개월 구형…“허위사실 알고도 공표 증명 안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무원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C씨와 캠프 관계자 D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 한 채 전국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만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초 연설문에는 인구 50만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가



공보물 작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누락된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준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한 것이 아

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박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들었다.

영상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천안 역사신축과 수도권 광역전철 현황 등 시민 관심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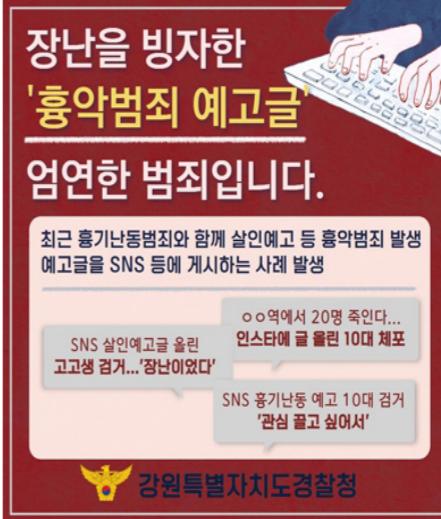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또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흥보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흥보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시장과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D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천안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천안시정에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범행 당일 영월에서 붙잡혔다.



장난삼아, 관심 받고 싶어서 범죄 발생을 예고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절대 금지!!

이와 같은 글을 본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장난삼아 글을 물리거나 행위를 실행한 경우 처벌은? 혐박죄, 살인예비죄 등에 해당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흉기난동 범죄 예방 포스터

‘흉악범죄 예고 글, 엄연한 범죄’

강원경찰 특별치안 활동

강원경찰청은 흉기 난동 범죄 대응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매일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집중단속과 예방 홍보에총력을 기울인다.

강원경찰은 경찰발전협의회 등 경찰 협력 단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안감 확산 방지에 나서는 한편 교육청과 협업해 범죄 예방 포스터를 배부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 활동을 한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직접 학교를 찾아 특별예방 교육도 한다.

/ 민석호 기자

공소시효 한달 남은 보이스피싱범 10년만에 검거…피해액 되찾아

부산 사하경찰서, 중국서 사기행각 30대 구속 송치·공범 40대 체포



경찰이 공소시효가 한 달여 남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을 10년 만에 검거했고 피해자의 돈도 되찾았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30대 A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지명 수배가 내려진 A씨가 중국에서 현지 공안에게 붙잡혀 한국으로 추방된 것이다.

A씨는 2015년부터 서울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천공항에서 A씨 부산으로 암송한 경찰은 공범 체포 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10년 동안 속앓이를 했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해 B씨에게 협의하도록 노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경찰이라고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고 믿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수도권에 살아 결국 인근 지구대에 있는 경찰들이 직접 피해자의 자택에 방문해 사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B씨와 사하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피해자 4명은 지난 2일 경찰서에서 피해 금액 6천100여만원에 대해 협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의 수사망을 피해 중국에서 도주해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벌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국 경찰서에서도 여러 건의 접수돼 있어 추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고, B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30대 A씨가 인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성매매 혐의도 인정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추가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다.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성매매와 불법 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 을 유보했다.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 를 투약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는 부인했다.

권씨는 작년 6~11월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그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활동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올해 5월 추가기소됐다.

/ 강희준 기자

/ 양희섭 기자

부산서 대낮 음주운전 후 달아난 20대 운전자



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하차하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해 인근 주택가에 차량을 주차했다.

A씨는 도주 예상 경로를 토대로 추격에 나선 경찰 순찰차를 보자마자 달아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신발이 벗겨진 채로 300m 정도 달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중국, 필리핀에 공세 강화…“남중국해 좌초 군함 예인하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는 필리핀을 이를 연속 겨칠게 비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필리핀을 향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좌초된 군함을 즉시 예인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양국 간 갈등은 지난 5일 중국 해경이 스프래틀리 군도 내 세컨드 토마스 암초(중국명 련아이자오·필리핀명 아용인)에 좌초된 필리핀 군함에 보급품과 건축 자재를 전달하려던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면서 시작됐다.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자국 군함이 좌초했다며 해당 선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지만,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해당 암초를 점거하고 있다고 맞서 왔다.

이 때문에 중국과 필리핀은 좌초 군함



필리핀 군용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중국 해안경비정

문제로 잊을 만하면 갈등을 빚고 있다.

대변인은 이날 “런아이자오는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로, 이미 필리핀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필리핀은 좌초된 군함을 즉시 예인하고, 련아이자오를 무인·무시설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필리핀에 여러 차례 협상을 제안했지만 필리핀 측이 군함 수리 자재를 운반

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됐다며 이번 물대포 발사는 자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꺼냈다.

대변인은 다만 “필리핀은 중국의 중요한 해상 이웃 국가”이며 “중국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필리핀과 해상 문제를 적절

하게 처리하고 양국 관계와 해상 정세의

안정을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국수주의 성향의 관영 환구시보도 필

리핀을 강하게 비난했다.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중국 해경선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필리핀 선박을 직접 봉쇄하면 충돌하거나 침몰할 수 있어 물대포를 사용한 것”이라며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 심지어 일본이었다면 (중국 측 대응의) 강도는 훨씬 공격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고 미국이 필리핀과 군사·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때문”이라며 “필리핀이 환상을 빨리 포기할수록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주는 개발과 협력의 혜택을 더 빨리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필리핀 외교부는 자국 해양경비대 함정에 물대포를 쏜 중국을 비난하며 황시렌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 신재윤 기자



일본 도시바

日투자펀드, 오늘부터 도시바 공개매수

“총액 18조원 규모”

일본 투자펀드 ‘일본산업파트너즈’(JIP)가 도시바를 인수하기 위해 8일부터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니혼케이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대표 기업 중 하나인 도시바는 과거 회계부정 문제와 미국 원자력발전소 자회사의 거액 손실로 위기에 빠진 바 있어 경영 재편을 모색해 왔다.

앞서 2021년 4월 유럽에 거점을 둔 투자펀드인 CVC캐피털파트너스가 도시바 인수를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이어 도시바는 기업 가치 제고 방안으로 같은 해 11월 그룹 전체를 분할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권을 갖게 된 JIP는 작년 11월 도시바에 인수를 제안했고, 일본 기업의 출자와 은행 융자로 자금 조달을 추진했다.

/ 곽진수 기자

태국 “태국인 챔버리 성범죄 의혹, 오해 있지만 철저 조사할 것”

스카우트 전북연맹, 태국 남성지도자 여자 샤워실 잠입 주장

태국 당국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챔버리’에서 제기된 태국 국민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오해가 있지만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8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스카우트연맹 수민 캐우파나 사무총장은 새만금 애영장에서 성범죄가 저해자로 지목된 태국 지도자 A씨가 정직됐으며,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날 말했다.

수민 사무총장은 A씨가 한국에서 돌아오면 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뜨리눅 티안 텅 교육부 장관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에 입각한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수민 사무총장에 따르면 A씨는 여성용이라는 표시를 보지 못하고 여

자 샤워실에 실수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은 2일 새벽 영지 내 여자 샤워실에 A씨가 들어오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조직위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조기 퇴영한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성적 목적의 침입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고, 조직위와 세계스카우트연맹도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여자 샤워실에 A씨가 침입했다는 신고가 지난 3일 접수됐고, A씨가 들어와 먼저 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가 들어와 샤워했고 노랫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왔다가 A씨를 발견했다.

전북연맹 측은 “A씨가 우리 여자 대장을 따라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잡힌 후에 ‘샤워하러 들어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 조영석 기자

미, ‘쿠데타’ 니제르 군부와 회동 ‘빈손’…“어려운 대화”

눌런드 “협상 주선 위한 첫번째 대화”…대통령·쿠데타 수장 접견은 거부돼



니제르 군부 지지자들

미국 국무부 2인자가 쿠데타로 훈란을 겪고 있는 니제르를 방문해 군부 세력 고위급과 만났으나 대화에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서 쿠데타 후 국방장관을 자처하고 있는 무사 살라우 바르무 장군을 만나 2시간여 대화했다.

눌런드 부장관 대행은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번 대화는 극히 솔직하고 때로는 꽤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니제르에 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법적으로 지원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으나 군부 세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들(니제르 군부)은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꽤 확고한 견해

를 갖고 있으며 이는 니제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눌런드 부장관 대행은 쿠데타 이후 억류 중인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사실상 가택 연금된” 상태라면서 바줌 대통령 접견을 요청했으나 군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쿠데타 세력의 수장인 압둘라흐마네 티아니 대통령 경호실장과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니제르에서는 티아니가 이끄는 군부 세력이 지난 달 26일 쿠데타를 일으켜 바줌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훈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인 6일로 서아프리카 15개국의 연합체인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가 니제르에 현장 질서 회복을 요구하며 시제한 시한이 만료됐다. ECOWAS가 니제르가 시한을 넘길 경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통하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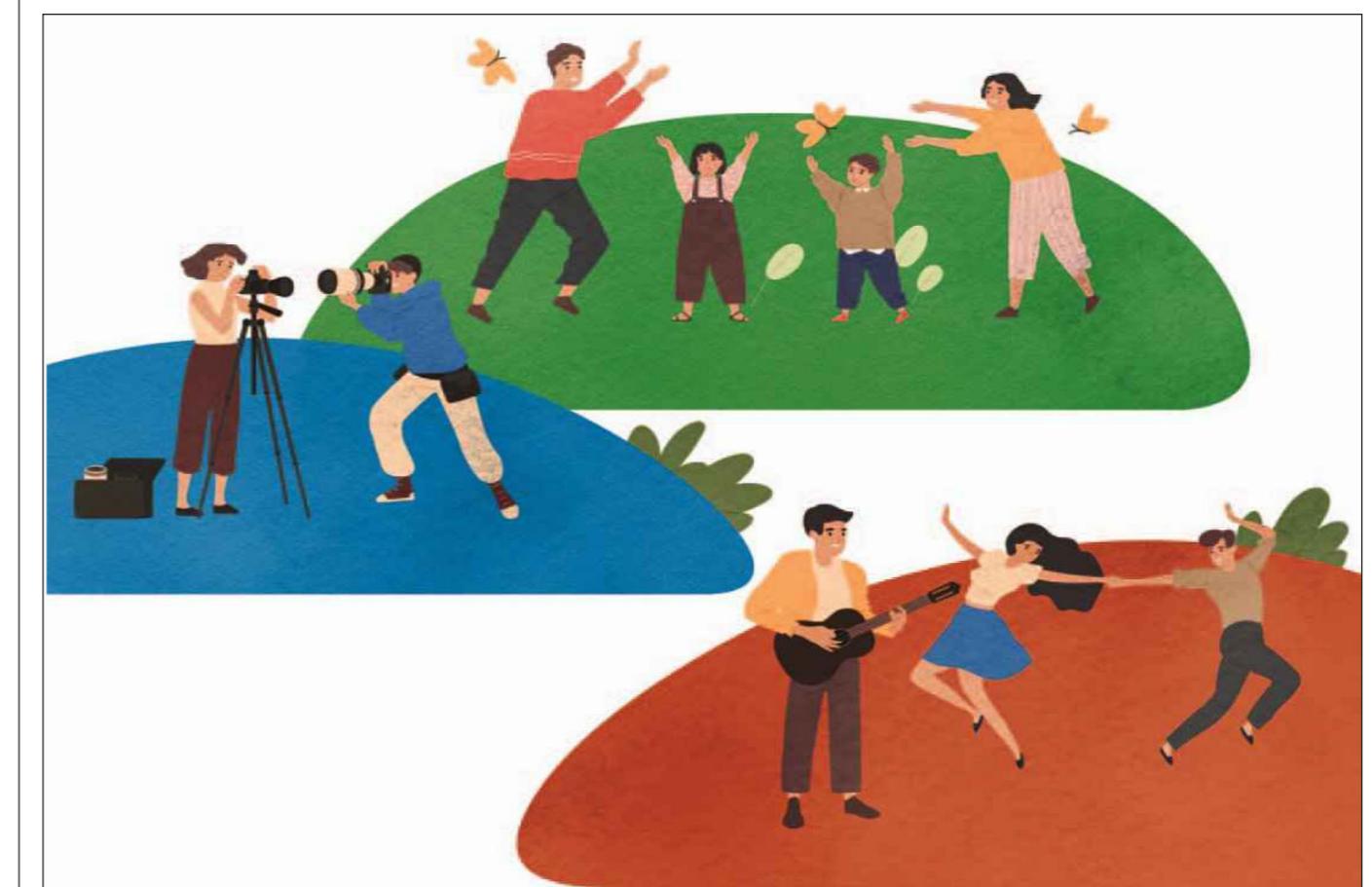
그는 “그들(니제르 군부)은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꽤 확고한 견해

ECOWAS는 오는 10일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니제르는 우라늄과 원유 생산국이며 서방이 이슬람 극단 세력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종족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는 이곳에서 축각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군부 세력과의 추가 협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눌런드 부장관 대행은 “이번 자리는 미국이 주선(good office)을 제안한 첫 번째 대화였다”며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헌법 질서로 돌아가고자 바란다면 우리는 이를 도울 준비가 돼 있고, 모든 측면에서 우려를 해소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부 세력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태지만 “그들이 이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손유민 기자



당신의 꿈과 DB의 꿈이 함께

꿈을 위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소통하고, 변화하는
세상 모든 당신

꿈꾸는 당신과 함께
더 큰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Dream Big



새마을금고 사태에 놀란 금융권 '뱅크런' 방어막 쌓는다

저축은행 위험 탐지체계 구축…비상시 한은 유동성 지원

지난달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로 사회적인 파문이 일자 금융권이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상 상황'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용역 공고를 냈다.

수기로 관리하던 저축은행 예수금 데이터 시스템을 자동화함으로써 자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예수금 총액 동향 및 정기예금 중도 해지율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면 담당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는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수금 동향을 적시에 파악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뱅크런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40년간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올해 파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6시간이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소비자들이 창구로 달려가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예금을 인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최근 대형 저축은행에서 1조원 대 결손이 발생해 지금 정지가 예상된다는 거짓 '자라사' 가 나돌자 30분 단위로 인출 주의를 살피며 비상 대기할

정도였다.

최근 한국은행도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기관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이정용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SVB와 같은 파산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보다 예금 인출 속도가 "100배는 빠를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부실화를 대비해 제출한 정리 계획을 승인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VB 등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김성윤 기자

하이브 상반기 매출 1조 돌파…사상 최대 반기 실적

2분기 영업이익 7.9% 감소…BTS 페스타·위버스콘 개최 비용 반영

하이브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앨범 판매량 및 공연 매출액을 기록하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행사와 위버스콘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영업 비용 증가로 인해 2분기 영업 이익은 소폭 감소했다.

하이브[352820]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1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2분기 매출은 6천21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천174억원으로 18.7% 늘었다.

이 중 앨범 및 공연 매출이 포함된 직접 참여형 매출은 4천36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9% 증가했다. 특히 공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85.4% 증가하며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와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월드 투어, 세븐틴 팬미팅이 2분기에 개최된

것이 공연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한 해 동안 판매한 앨범 판매량을 올해 상반기 만에 넘어서면서 하이브 국내 아티스트의 음원 및 앨범도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BTS 제이홉 솔로 '잭 인 더 박스' 실물 앨범과 뷔의 솔로 앨범, 정국의 솔로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순이익은 1천40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4% 늘어났다.

상반기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의 총 앨범 판매량은 2천270만장으로 지난해 1년 동안 판매한 앨범 수(2천220만장)를 넘어섰다.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전 진행된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7개월 만에 1천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고를 올린 세븐틴과 초동 126만장을 기록한 러세라핌,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빌보드 200' 1위를

달성한 뉴진스가 앨범 판매량을 견인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K팝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하이브 국내 아티스트의 음원 및 앨범도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BTS 제이홉 솔로 '잭 인 더 박스' 실물 앨범과 뷔의 솔로 앨범, 정국의 솔로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9월부터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가 하이브의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 입점하면서 하이브와 SM의 플랫폼 협업도 본격화한다.

박지원 CEO는 "9월 초 슈퍼주니어, 샤이니, 레드벨벳, 엑소, 보아, 에스파, 소녀시대, 동방신기, 강타, 신인 그룹 라이즈 등 총 13팀의 SM 아티스트가 위버스 커뮤니티를 동시에 오픈한다"며 "이 외에도 연내 글로벌 아티스트의 합류 등으로 위버스의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강우 기자



농협, 10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농협경제지주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예약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 과일, 한우, 굴비, 특선물 등으로 구성된 우리 농축수산물 세트와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339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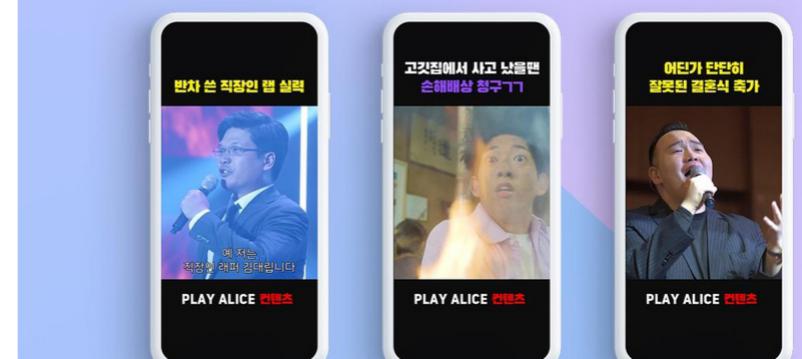
매장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는 농협몰 'e-하나로마트'에서도 선물세트를 주문할 수 있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프리미엄부터 실속형까지 다양한 선물세트를 마련했다"며 "농업인이 준비한 우리 농축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희준 기자

유쾌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놀이터 'PLAY ALICE'

지루하고 따분한 보험업의 이미지를 180도 바꾸는 혁신 지향



롯데손보, 디지털손보사 도약한다

플랫폼 '앨리스' 출시

롯데손해보험은 8일 온라인 플랫폼 '앨리스'를 출시하며 디지털 손해보험사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앨리스'는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을 담은 플랫폼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출시됐다.

이 플랫폼을 통해 16종의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를 간편인증만으로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보험계약 조회와 보험 청구도 가능하다.

/ 민도혁 기자

정부 비축 천일염 400t 추가 방출

포장단위 10kg로 줄여 판매



줄여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400t씩 총 800t의 비축 천일염을 방출했다.

이번 방출분은 하나로마트, GS 더프레쉬 등 주요 유통업체를 통해 7월 소비자가격 대비 약 20% 할인된 가격

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천일염 주산지인 신안군에서도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1004몰'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천일염 10kg 상품을 1인 2포 대 한정으로 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방출 이후 소비자가격 동향을 지속 관찰해 필요시 추가 방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최민용 기자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한전KPS

Global No.1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kps.co.kr

오세훈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서울 유치 환영…꼼꼼히 준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대축제인 ‘세계청년대회’ 서울 유치를 환영하며 교통·위생·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서울 유치를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한국 천주교계가 그동안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태 대주교께서 최근 저와 만나 성공적 개최와 협조를 당부하신 후 출국하셨는데 드디어 리스본 유치가 결정돼 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표현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세계청년대회는 적계는 50만명에서 많게는 400만명이 모이는 가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대축제일뿐만 아니라 사



6일 포르투갈 리스본의 테주 공원에서 열린 올해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2027년 차기 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발표되자 한국의 순례자들과 주교들이 무대 위에서 태극기를 펼쳐 들며 환호하고 있다.

회 문제를 토론하는 진지한 공론의 장으로 사회적 의미도 크다”며 “서울대교구는 2027 서울대회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시하고 위로와 화

해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서울시는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

울이고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4년에 이어 13년 만에 방한을 예정하게 되어 또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기뻐했다.

오 시장은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을 때를 대비해 숙소, 먹거리는 물론이고 교통, 위생, 안전 대책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테주 공원에서 올해 올해 세계청년대회 폐막일 미사에서 2027년 차기 대회가 “아시아 한국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닷새 또는 연새 동안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각지에서 적계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명의 가톨릭 청년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 송원기 기자



영국 대원들

영국 캠버리 대표단 960명 인천 도착

인천 유정복 시장, 회의서 캠버리 지원 방안 마련

관광·체험 프로그램 다양 지원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캠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 일부가 인천 영종도에 여장을 풀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영국 대표단 가운데 960명이 전날 오후 늦게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호텔 3곳에 나눠서 투숙했다.

시 관계자는 “어제 저녁 인천에 도착한 영국 대원 상당수가 몹시 지친 상태여서 우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인천의 명소를 둘러보는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오전 유정복 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새만금 캠버리에 참가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우선 문화·힐링·평화·역사·감동 등을 주제로 한 5개 관광·체험 프로그램이 당일 코스부터 1박2일, 3박4일 코스까지 다양

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송도국제도시와 개항장, 월미도, 아라뱃길, 강화도를 비롯한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다른 국가 대표단과도 인천 방문 일정과 관련해 협의를 마쳤다.

오는 12일부터 멕시코·벨기에·아이슬란드·아일랜드·체코·일본 캠버리 참가자 1천명이 순차적으로 인천을 방문해 지역 명소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시는 이들의 숙박 편의를 위해 이용 가능한 지역 호텔들을 연계해주고 방학 중인 인천대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 방문 기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인천관광공사의 시티투어버스도 활용할 계획이다.

/ 윤유진 기자

용인특례시, 학계·연구원 등 시정자문위원 20명 위촉

주요 정책 4개 분야 시정 수립 및 현안 과제 자문… 2년 임기 활동

용인특례시는 7일 시청 비전홀에서 시정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2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용인이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생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등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힘과 지혜를 모아 용인을 업그레이드시켜 한다. 위원님들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시책과 현안, 새로운 정책·제도 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해 권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는 자치행정,

문화복지체육, 경제환경, 도시건설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정부 분야별 전문가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방선규 한라대 초빙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및 문화예술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라대 광고미디어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는 문화복지체육 분야 전문가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이호은 청운대 교수(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고문), 강기훈 외대 교수(한국통계학회 부회장), 남

재걸 단국대 교수(전 행안부 과장), 김서용 아주대 교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박윤환 경기대 교수(인사혁신처 자체 평가위원)를 위촉했다.

문화복지체육분야에서는 방선규 위원장과 함께 김용기 위니아트컴퍼니 대표(한국예술행정협회 상임고문), 노갑택 명지대 교수(남자테니스 국가대표팀 감독), 이태원 명지대 교수(뮤지컬 명성황후 주연배우), 박정배 청운대 교수(문화부 관광 거점도시위원회 위원), 박지현 대구카톨릭대 외래교수(오페라 가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를 선임했다.

/ 강동준 기자

경제환경분야에서는 박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류하상 용인예술과학대 교수(용인예술과학대 중소기업지원센터장), 강현정 홍익대 교수(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김상수 용인대 교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 평가위원)가 위촉됐다.

도시건설분야에서는 김대익 한경대 명예교수(전 용인시 총괄건축기), 진정화 과에이씨 건축기술연구소 연구위원(국토부 중앙건축 심의위원), 김현수 단국대 교수(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위원), 손정민 글로벌 퓨처 그룹 대표(서울시 디자인재단 이사)를 선임했다.

/ 윤유진 기자

“과천과학관에서 우주인 훈련·화성거주 체험하세요”

우주탐사 특화전시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11일 개관식·12일 일반 개관

국립과천과학관은 우주인 모의훈련과 화성 거주 임무 수행을 체험하는 우주탐사 특화전시관 ‘스페이스 아날로그’를 신설, 11일 개관식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스페이스 아날로그는 기존 스페이스월드를 새로 단장한 전시관으로 중력변화, 고립과 격리, 선외활동, 화성 거주지 구축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전시관은 지름 30미터, 높이 24미터의 원통형 구조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됐다. 지하층에서는 우주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실제 우주인처럼 훈련하는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훈련할 수 있고, 지상층에서는 화성 거주 임무를 살펴볼 수 있다.

개관식 다음 날인 12일부터 정식 개관하며 일반 관객은 아날로그 전시해설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현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우리나라는 누리호와 다누리



호의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며 “국립과천과학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전시관을 통해 아이들이 우주탐사의 꿈을 키우고, 장차 훌륭한 우주인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흥민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수확 농작물 70kg 푸드뱅크 기부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채소값이 급등하자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강공원 자연학습장에서 자란 채소를 70kg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잡실·이촌한강공원 자연학습장에서 재배한 수확물 중 온전하고 깔끔한 상태의 채소를 선별해

한국사회복지협회 광진푸드뱅크에 지난 달 25일 기부했다. 기부한 채소는 가지 16kg, 오이 5kg, 고추 45kg, 깻잎 3kg, 방울토마토 1kg 등 70kg이다. 기부된 채소는 필요한 시민이 가져갈 수 있게 광진푸드뱅크 마켓에 비치했다.

시는 2020년부터 약 710kg의 떡거리리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고 앞으로도 수확물을 선별해 나눔을 지속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채소값이 금값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강공원 자연학습장에서 재배한 수확물을 나눠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소상공인,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중소기업, 더 날개 돋칠 힘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의 힘은 강해질 테니까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우리은행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초읽기 돌입…해체 심의 ‘조건부 통과’

철거 반대 측, 등록문화재 지정 촉구 일곱번째 띠 잇기로 맞서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시민사회단체의 등록문화재 직권 지정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과 달리 원주시의 극장 철거는 초읽기에 돌입했다.

원주시는 7일 제28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평원동(C도로) 아카데미극장 해체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6명의 심의위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극장 철거 시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 피해가 없도록 안전 조치를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시는 심의위원들의 안전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극장 철거 계획서를 조속히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철거 계획서가 보완되면 남은 행정 절



차는 감리 용역 선정과 철거 허가 신청서 제출 및 승인이다.

큰 변수가 없다면 1963년 건립된 아카데미극장 철거 승인은 빠르면 이번 주, 늦

어도 다음 주 중에는 결정이 날 전망이다.

극장 철거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는 이날 오후 원주교오거리에서 일곱번째 띠 잇기 강강술래를 진행, 시의 조치에 맞섰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등 아카데미극장의 등록문화재 직권 지정을 촉구하기 마련했다.

류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한 절차로 통과한 극장 철거 안을 비판하고 등록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 서면질의를 보내기도 했다.

/ 박민준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견학하는 스카우트 대원

“차 제조과정 신기해요”

현대차 전주공장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허술한 제방 공사로 인해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제방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지하차도가 침수되지 않았음은 물론 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주시와 자원봉사단체, 군장병 등의 도움으로 빠르게 삶의 터전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기관의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사고의 궁극적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황호석 기자

“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니 것도 즐거웠다”고 말했다.

요리크 반 덴 헬 대원은 “현대차가 인류와 환경을 아끼는 모습은 스카우트의 정신력과 닮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들이 고무적으로 다가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오는 10일까지 일본, 말레이시아 등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맞을 예정이다.

다면 야영지를 조기 철수하기로 해 상황은 유동적이다.

전주공장은 친환경 상용차를 환경 문제 해결의 기반이라고 설명하며 생산 라인 전반을 소개했다.

스카우트 대원 더크 룩스는 “트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되어 좋았다”며 “(폭염으로 날이 더운데) 야영지를 떠나 잠깐이나마 바람을 쐬러 나오는

/ 김현우 기자

청주 오송주민들 “행복청, 농작물 등 피해 보상해야”



기자회견 하는 오송 주민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주민들이 지난 달 미호강 범람에 따른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농경지와 시설원예(하우스), 주택 등 침수 피해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송지역 이장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등 직능단체 소속 20여명은 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의 궁극적 원인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구간의 허술한 (임시)제방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하고, 사업 시행기관인 행복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엄중히 촉구



• 외화 환율은 기준 원화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수령까지
• 최대 90% 환율 우대
• 자유로운 보관과 출금
• 편리한 외화 배달 서비스

수령점 및 수령일 지정없이 보관, 출금, 대맡기, 선물을 자유롭게
• 환전한 외화 실물도 빠르게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환전 신청한 금액은 화폐로 직접 되돌릴 수 있으며, 거래 시장의 환율 때 환전 신청 시 적용한
• 환율이 대체로 적용됩니다. 환전 후 미화를 보관하는 모든 화폐는 예치금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 딜러(USD)는 제한된 기기 통화를 화폐로 입금금계좌에 입금 후 영업점에 방문하여 외화 현금을 출금할 경우 외화환급보수수료(외화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USD/EUR: 1.5% / 그 외 통화 3% • KB국민은행은 환전 시 24시간으로, 공휴일 포함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영업점에서 전화번호(000-00-00-00-00-00)와 애월주 입금 00:00~07:00 개시점 조정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시장내 내용은 법령 및 약관에 따라야 합니다.
• ☎ 1588-9999로 문의하세요.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star.com)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광주 시민단체 “파업 농성장 에어컨 차단은 사족 만행”



“파업 농성장 에어컨 차단 규탄” 기자회견

자들을 상대로 에어컨까지 끄는 것은 살인 행위”라며 “시민사회 원로들과 대표들이 에어컨 가동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사족은 묵묵부답”이라고 덧붙였다.

또 “에어컨에 이어 농성장 화장실만 온수를 차단하며 쇠약해진 단식 노동자들이 찬물을 사워하도록 하는 만행을 더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는 운영 재단인 사족이 빛고을의료재단으로 바뀐 이후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자 54일째 파업 투쟁을 하고 있다.

일부 노조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 임주성 기자

양구군, 여름방학 중 운영하는 초등돌봄 사업 ‘인기’

1~3학년 어린이 30명 대상…독서·만들기·놀이 체험 등 다채

강원 양구군이 방학 중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초등돌봄 사업이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구군은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배꼬미 놀이학교를 돌봄서비스 운영 단체로 선정, 지난달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학교 1~3학년생 30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책 읽기, 보드게임, 전래놀이 등 체험 및 놀이 중심 활동과 DMZ 편지볼 놀이 숲밥 체험, 지게마을 체험, 물놀이 체험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참여 학



생들에게 기초학습과 숙제 지도, 급·간식 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박현정 평생교육과장은 “양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더불어 아이 넓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홍진 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고객이야기 #안심로밍 #제로프리미엄



“**해외에서는
마음이 놓여야
잘 다닐 수 있으니까!
U+안심로밍은 필수죠~**

예전엔 해외 나갈 때 유심만 생각했었는데,
해외에서 인증 필요할 때 문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황했던 후로는 꼭 U+안심로밍 해갑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지 모를 만큼 데이터 속도, 품질,
문자도 완벽하고, 시간대랑 기간만 신청하면
무제한 편하게 쓸 수 있어 좋아요. 공항 갈 때
신청도 카톡으로 되니까 말 그대로 안심로밍이죠!

‘유플러스 10년 차 고객 김병채님’



QR코드 스캔하고 김병채님의
와이낫 스토리 더 보러 가기

이런 생각, 김병채님의
**WHY
NOT?**

유플러스 안심로밍

'퍼레이드 대신 완성도·안전성 높였다' 2023댄싱카니발 새 출발

뛰어난 기량 갖춘 12개 팀 엄선해 본선 무대…최종 8개 팀 선정

2023 댄싱카니발이 퍼레이드 대신 수준 높은 공연을 꽉꽉 채운 무대로 새롭게 출발한다.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댄싱카니발 축제사무국은 새 패러다임을 장착한 2023 댄싱카니발을 9월 22~24일 원주댄싱공연장 일원에서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퍼레이드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꾸민다. 가장 큰 변화는 무대의 완성도다. 예선에 참가한 여여 시민팀 중 전문가의 영상 심사를 통해 선발된 '뛰어난 기량'의 12팀이 전야제인 9월 22일 본선 무대에 오른다.

본선 경합을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등 8팀을 최종 선정한다. 이들 8팀은 총상금 3천600만원과



2022년 댄싱카니발

함께 개·폐막식이 열리는 23일과 24일 이틀간 4팀씩 나뉘어 앙코르 무대에 다시 선다. 아쉽게도 무대에 오르지 못한 팀들은 다른 공연 무대의 기회를 통해 시민 참여의 취지를 살린다. 올해 댄싱카니발의

가장 큰 특징은 무대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는 점이다. 시민팀 무대뿐만 아니라 강원도립무용단과 국내 뮤지컬팀 등 전문팀이 참여한다.

여기다 원주시립교향악단과 원주시립

합창단, 시민합창단, 퓨전국악팀 등 댄스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공연을 함께 선보여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예술의장을 펼친다. 가을밤을 수놓는 화려한 드론 쇼와 특수 조명, 미디어아트 등 의 불거리도 선사한다.

티켓 배부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코로나 팬데믹과 각종 안전사고 등을 거치면서 보다 높은 안전성을 고심한 결과 메인 무대를 찾는 관객에게 팔찌 형태의 무료 티켓을 사전 배부할 방침이다.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관객석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 댄싱카니발에서는 별도의 티켓 없이 시민이 자유롭게 공연장을 드나들 수 있었다. 자세한 티켓 배부 방식 등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 오정민 기자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영국 캠버리 대원들 공연 초대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버리 대회'에서 조기 퇴영한 영국 캠버리 대원들을 공연에 초대했다.

뮤지컬 제작자 라이브와 컬쳐홀릭은 영국 캠버리 대표단 4천500명 전원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리는 '태권, 날아올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티켓을 후원한다고 8일 밝혔다.

강원 라이브 대표는 "영국 대표단이 마땅히 소화할 프로그램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마침 태권도 소재의 뮤지컬을 공연 중이어서 잠시나마 티켓을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좋겠다"고 말했다.

'태권, 날아올라'는 가상의 한국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를 배경으로, 태권도 유망주들의 성장 스토리를 그린 작품이다.

/ 최경원 기자

생후 한 달 만에 몸무게 6~8배 폭풍성장…쌍둥이 판다 사진 공개

눈·귀·어깨에 검은무늬 확연해져…유튜브 영상 조회수 3천만뷰 넘어

에버랜드가 생후 한 달 된 쌍둥이 아기 판다의 사진을 7일 언론에 공개했다.

생후 30일 차인 지난 6일 촬영된 사진 속 쌍둥이 판다는 다소 통통해진 몸매에 눈, 귀, 어깨, 팔, 다리 주변에 판다의 특징인 검은 무늬가 확연해지며 제법 판다다운 모습을 보인다.

현재 쌍둥이 판다는 엄마 아이바오가 두 마리 모두를 동시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사육사와 수의사들이 인공포육을 병행하고 있다.

아이바오가 쌍둥이 중 한 마리를 돌보면 다른 한 마리는 인큐베이터로 데려와

사육사가 보살피는 방식인데, 두 마리 모두 어미와 함께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공포육은 번갈아 가며 진행된다.

생후 30일 차를 맞아 진행된 건강검진에서 쌍둥이 판다는 몸무게 1.1kg, 1.2kg

을 기록하며 한 달 사이에 체중이 각각 6배, 8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폭풍 성장 중이다. 쌍둥이 판다들은 최근 처음으로 뒤집기에 성공하기도 했다.

쌍둥이 판다는 앞으로 성장 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배밀이를 하고, 시력이 생기기 시작해 4개월경부터는 네 발로 걸음

마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엄마 젖과 분유를 함께 먹고 있는 쌍둥이 판다가 대나무를 먹기 시작하는 건 생후 6개월경으로 이때부터는 판다월드 방사장에서 고객들과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버랜드 판다월드에 살고 있는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판다는 모두 암컷으로, 지난 달 7일 각각 몸무게 180g, 140g으로 세상에 나왔다. 산모와 아기 판다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쌍둥이 판다는 엄마 아이바오가 두 마리 모두를 동시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사육사와 수의사들이 인공포육을 병행하고 있다.

쌍둥이 판다는 엄마 아이바오가 두 마리 모두를 동시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사육사와 수의사들이 인공포육을 병행하고 있다.



튜브는 물론, 에버랜드 블로그, 주토피아 네이버 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관련 영상 조회수 합산이 3천만뷰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며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송영관 사육사가 쌍둥이 판다 구별법을 소개하며 판다 팬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 정유미 기자

코믹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성남아트리움서 공연

유쾌한 분위기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무대에 오른다. 공연기획사 비다 엔엔터테인먼트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기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로시니의 희극 오페라를 현대적으로 연출한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공연한다. 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로시니의 원작의 내용

/ 권정윤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퇴직금,
불릴 줄
아는 사람은

NH투자증권 IRP

퇴직금은 키우고 세금은 줄이고!
퇴직연금은 NH투자증권입니다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미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진짜투자규약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은 자산기액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금액의 손실(0~100%)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대소득 세(0.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는 예금보험회사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기준호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보호하되 보호하는 고객님의 다른 예금보험회사 금융투자상품과는 별도로 운용됩니다. 첫 5년간 원금을 조작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의 연금저축에 기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QV-IRP에서는 투자금에 대한 운용기준과 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루납, 상세 수수료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투자, 문의가 되다

NH투자증권

금용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세심하게 지원해 주니까,
안심하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드디어 맛집 등극!
챙하고 해를 날이 오기 오네요!
#신한카드 #소상공인지원 #사업장감동
#MyShop파트너 #MyCredit #금융으로 일상을 이롭게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당신이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MyShop 파트너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마케팅 통합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간접경진 예약/전용 쇼핑몰 제공

MyCredit 서비스
금융권 최초, 개인사업자 맞춤 신용평가로 소상공인 지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준법감사 | 산인필 제20230623-Exn-002호 | 2023.06.23 ~ 2024.06.22

1Lead by S 신한카드



AI 풀스택이면 가능합니다

기업마다 필요한 AI가 다른데,
맞춤형으로 AI를 쓸 수 없을까?

KT의 AI 풀스택이면 가능합니다
AI 전문 반도체를 만드는 리밸리온,
산업별 맞춤형으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레와 함께
유연하게 쓸 수 있는 KT 클라우드로
KT만의 AI 풀스택을 완성했으니까요

어떤 기업이든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AI
KT가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꼭 맞춤 KT AI
DIGICO KT



류현진, 경기 중 강습타구 맞고 쓰러져…“오른쪽 무릎 타박상”

4이닝 무피안타 1볼넷 호투하다 부상…수술 복귀 후 두 경기만에 악재



아파하는 류현진

왼쪽 팔꿈치를 수술하고 14개월 만에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복귀 두 번째 선발 등판 경기에서 타자가 친 공에 오른쪽 무릎 안쪽을 정통으로 맞고 조지 강타했다.

류현진은 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교체되기 전까지 4이닝 무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평균자책점은 7.20에서 4.00으로 떨어졌다. 류현진은 0-0으로 맞선 4회말 2사 1루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와 마주했다.

오스카 곤살레스에게 초구 바깥쪽 체

인지업을 던졌고, 곤살레스가 반응해 타격했다. 타구는 류현진을 향했고, 류현진이 수비 자세를 취하기 전 그의 오른쪽 무릎 안쪽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류현진은 무릎을 맞고 옆으로 굴러간 공을 잡아 1루로 송구해 곤살레스를 잡았다. 그러나 류현진은 그대로 고꾸라져 그라운드로 넘어져 한참 동안 고통을 호소했다. 류현진은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의 부축을 받고 절뚝거리며 더그아웃으로 들어갔고, 5회말에 불펜 투수 제이 잭슨으로 교체됐다.

류현진의 정확한 몸 상태는 알리지 않았다. 다만 현지 MLB 중계진은 오른쪽 무릎 타박상이라고 알렸다. / 최준용 기자



한국 경보 간판 최병광(왼쪽)과 김현섭 코치

최병광, 자격 얻고도 세계육상선수권 못 가

육상연맹, 삼성전자 육상단에 “소속팀 경보 코치도 함께 해달라” 요청

‘한국 경보 간판’ 최병광(32·삼성전자)이 2023 부다페스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갖추고도 대한육상연맹과 삼성전자 육상단의 이견 때문에 6회 연속 세계육상선수권 출전이 불발됐다.

대한육상연맹과 삼성전자는 8일 “최병광이 2023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최병광의 출전 불발에 관한 연맹과 소속팀의 설명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대한육상연맹은 “연맹 내에 국가대표 경보 지도자가 있지만, 경보의 특성상 최병광과 훈련을 함께한 김현섭 코치가 세계선수권에도 함께 출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서 최병광의 소속팀에 ‘선수 컨디션 관리와 경기력 극대화 차원에서 현재 소속 지도자 파견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소속팀에서 코치 파견에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보는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조금 더 주력하는 게 좋다는 연맹의 내부 판단도 있었다. 삼성전자 육상단은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육상단은 “우리 소속팀 코치가 세계선수권에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을 최근에 들었다. 여러 절차상 김현섭 코치를 세계육상선수권에 파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맹이 ‘선수만 세계선수권에 내보낼 수는 없다. 코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알려와 결국 최병광 선수의 세계선수권 출전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연맹과 소속팀이 굳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가대표 소속이 아닌 김현섭 코치가 보유하고 있다.

김현섭 코치는 2007년 오사카(20위), 2009년 베를린(31위), 2011년 대구(3위), 2013년 모스크바(9위), 2015년 베이징(10위), 2017년 런던(26위), 2019년 도하(21위), 2022년 유진(34위) 등 5회 연속 세계선수권에 출전했다.

부다페스트에서 6회 연속 세계선수권 출전도 노렸다. 한국 선수의 세계육상선수권 최다 연속 출전 기록은 김현섭 코치가 보유하고 있다.

김현섭 코치는 2007년 오사카(20위), 2009년 베를린(31위), 2011년 대구(3위), 2013년 모스크바(9위), 2015년 베이징(10위), 2017년 런던(26위), 2019년 도하(37위) 등 한국 육상 사상 최다인 ‘7회 연속 세계선수권 출전’의 기록을 썼다.

최병광은 “6회 연속 세계선수권 진출에 크게 업마이진 않았다. 다만 이번에 김현섭 코치와 ‘새로운 방식’의 훈련을 이어가며 부다페스트에서는 예전 세계선수권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도전할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고 했다.

/ 박준호 기자

뮌헨, 모나코에 4-2 완승…김민재는 치명적 실수로 첫 실점 빌미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에 새 동지를 틴 김민재가 프리시즌 마지막 친선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뮌헨은 8일(한국시간) 독일 우테르하징의 스포츠 스포르트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모나코(프랑스)와의 친선경기에서 4-2로 이겼다.

3경기 연속 선발 출격한 김민재는 후반 18분 프란스 크라치그와 교체됐다.

뮌헨은 전반 29분 모나코의 일본인 공격수 미나미노 다쿠미에게 선제 실점했다.

김민재가 어이없는 페스 실수로 실점의 빌미를 줬다.

뮌헨 위험지역에서 김민재가 한 백패스를 모나코 알렉산드르 골로빈이 손쉽게 가로채 슈팅으로 연결했다.

이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으나 이어진 상황에서 미나미노가 원발 슈팅을 골대 왼쪽 하단에 꽂았다.

하지만 뮌헨은 전반 31분 콘라드 라이메르의 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추더니 전반 45분 저말 무시알리의 골로 역전을 이뤘다.

뮌헨은 3연승으로 기분 좋게 프리시즌 일정을 마무리했다.

뮌헨은 일본에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를 상대로 치른 프리시즌 첫 경기에



김민재

페널티킥 추가골이 이어졌다.

모나코는 후반 19분 위삼 벤예데르의 페널티킥 골로 한 점을 만회했지만, 뮌헨은 후반 23분 레로이 자네의 쇄기골로 화끈한 승부를 마무리했다.

김민재는 기초군사훈련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듯 이날 다소 지친 기색이었다.

뮌헨은 오는 13일 오전 3시 45분 킥오프하는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으로 2023-2024시즌을 시작한다.

/ 이문성 기자



프로배구 컵대회서 ‘묻지마 범죄’ 예고…금속탐지기 설치

한국배구연맹(KOVO)은 프로배구 선수들을 겨냥한 협박 글이 인터넷에 게시됐다며 2023 구미·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안전 운영 대책을 강화했다.

KOVO는 “대회 장소인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 관중 출입구에 금속탐지기 2대를 설치하고 휴대용 스캐너 4개를 배치해 경기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흉기를 사전에 막고 있다”며 “경호 인력도 추가 투입했다”고 전했다.

KOVO에 따르면, 컵대회에 출전 중인 배구 선수들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협박 글이 지난 6일 온라인상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KOVO는 구미시와 긴급 협의를 통해 선수단 숙소에 경찰 배치를 요청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 유현승 기자

전반 추가시간에는 세르주 그나브리의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HRDK로 능력을 짓다

K-HRD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정리,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K팝 콘서트 '플랜B' 가동…뉴진스, 잼버리 아쉬움 덜어줄까

진행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낳은 '2023 새만금 세계 스파우트 잼버리'가 하이라이트 행사인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 그룹 뉴진스 등 K팝 스타들을 앞세워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8일 방송과 공연 업계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룹 뉴진스는 당초 같은 날 출연할 예정으로 알려졌던 KBS의 '뮤직뱅크'가 결방하면서 이번 콘서트 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데뷔 1년여 만인 지난주 미니 2집 '겟 업'(Get Up)을 '빌보드 200' 1위에 올리고 타이틀곡 전곡을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 진입시키는 등 주목받고 있다. K팝 걸그룹이 '핫100'에 세 곡 이상을 동시에 올려놓은 것은 뉴진스가 처음이다.



뉴진스

다.

이 밖에도 같은 날 방송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뮤직뱅크'에 출연할 계획이었던 다른 가수들도 콘서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뮤직

뱅크'에 출연하기로 돼 있던 가수들이 'K팝 슈퍼 라이브' 무대에 서게 된다고 들었다"며 "공식 라인업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팝 슈퍼 라이브'는 지난 6일 새만금

야외 특설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일정과 장소가 한 차례 변경됐다.

이후 제6호 태풍 카누가 처음 예측과 달리 서쪽으로 진로를 틀어 새만금 앙장을 지나갈 것으로 예보되면서 콘서트 장소를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전 계획대로라면 아이브(IVE),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엔믹스(NMIXX) 등이 콘서트 무대에 올리야 하지만, 일정이 변경되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BTS)과 과거 '강남스타일'로 K팝의 인기를 이끌었던 싸이가 참여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들은 일정상 11일 공연이 어려운 상황이다.

/ 임희주 기자



영화 '비공식작전'의 한 장면

영화 '비공식작전' 미국·일본·대만 등 103개국에 판매

이달 2일 개봉한 김성훈 감독의 신작 '비공식작전'이 미국을 포함한 103개국에 판매됐다고 배급사 소박스가 8일 밝혔다.

소박스에 따르면 '비공식작전'이 판매된 국가에는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도 포함됐다.

'비공식작전'의 판권을 사들인 북미 지역 배급사 '웰고 유에스에이'는 이 영화에 대해 "아슬아슬한 액션에 매료되는 것은 물론, 가슴이 떴해지는 이야기와 코믹한 요

소들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영화는 북미 지역에서 지난 4일 개봉한 데 이어 9일 필리핀, 10일 호주와 뉴질랜드, 18일 영국에서 개봉 예정이다. 대만, 홍콩, 마카오, 태국 등에선 다음 달 개봉한다.

하정우와 주지훈 주연의 베디 액션 영화인 '비공식작전'은 1980년대 발생한 실화를 토대로 한 작품으로, 중동 지역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 외교관의 구출 작전을 그렸다. 미국적 풍광을 배경으로 한 빠르고 강도 높은 액션이 강점이다.

/ 곽도성 기자

아이유 측 "간첩·표절 루머 유포자 형사 고소"

"악플러 100여명 고소장 제출…법적 책임 물을 것"



가수 아이유(IU·본명 이지은)의 소속사가 가수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유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올해 5월 4일 허위 사실 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전단이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소속사는 "고소장 제출 후 수사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고소인을 특정했다"며 "다면 피고소인이 현재까지 조사 진행을 거부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법률 대리인이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전단 부착에 대해선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아이유가 표절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일에 대한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소속사는 "5월과 7월에 세 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 고발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소명했다"며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율리 온라인상에서 아이유의 표절을 주장하는 게시글 작성자 100여 명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1천700여개에 달하는 표절 루머 게시글을 취합해 피고소인 58명을 선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음란한 게시물과 모욕적 발언을 게시 및 유포한 피고소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올렸다.

소속사 측은 "악성 댓글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신희정 기자



'천박사 퇴마 연구소' 강동원 주연, 추석 개봉

강동원이 주연한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하 '천박사')이 극장 가 최대 대목 중 하나인 추석 연휴를 겨냥해 개봉한다. 배급사 CJ ENM은 다음 달 29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직전에 '천박사'를 개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확한 개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작 단계에서 '빙의'라는 가제로 소개된 이 작품은 가짜 퇴마사 천박사가 강력하게 빙의된 소녀 사건을 의뢰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김홍태 작가의 웹툰 '빙의'를 바탕으로 했다. 메가폰은 김성식 감독이 잡았다.

/ 백경준 기자

소녀시대 써니, SM 떠난다…“용기 내 새로운 환경으로”



그룹 소녀시대의 써니가 16년간 몸 담았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 SM은 8일 "써니와 당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써니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이제 용기를 내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시각으로 스스로를 보려고 한다"며 전속계약 종료 소식을 전했다. 써니는 "19살 이순규가 소녀시대 써니로 데뷔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SM엔터테인먼트에 감사한 마음과 인사를 전 한다"며 "16년의 연예활동 기간 동고동락한 모든 직원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이은수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didas

www.bitscorp.co.kr

SAMSUNG

Galaxy Z Flip5

2023년 8월 11일 출시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컬러는 국가나 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